

##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·중·일 3국 공동발표문

대한민국, 중화인민공화국, 그리고 일본국의 세 지도자들은 다른 국제회의 계기와는 독립적으로 일본에서 개최된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3국간 재난관리 협력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.

3국은 지진, 태풍, 홍수, 토사유실,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왔다. 또한,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 등 재난관리 환경의 변화 속에서, 태풍, 홍수, 토사유실 등 수인성 재난의 위협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. 세 지도자들은 재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. 이에 따라, 3국 지도자들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, 법안, 우수한 시책, 경험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3국간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.

상기 사항을 감안하여, 3국 지도자들은 아래 3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.

1. 포괄적인 재난관리체제의 개발
2.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재난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 및 시스템의 개발
3. 국가, 지방 및 지역사회 등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재난관리 강화

이를 이행하기 위해 3국 지도자들은 재난관리에 관한 3국 정부 기관장 및 전문가 회의를 순번으로 개최하되, 제1차 회의는 내년도에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2008년 12월 13일, 후쿠오카